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각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한 해 사업 보고서와 신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음식이야기’를 주제로 한 전교인환경세미나가 11월 16일(토) 오전 10-12시(점심제공)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을 받은 선교회장님들은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파교회 찬양대가 주관하는 찬양의 가을걷이가 다음 주일(17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노 용 씨와 정우선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6일(토) 오후 2시 마리아주웨딩부페(역곡)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학 1:15b~2:9 / 시 145:1~5
살후 2:1~5 / 눅 20:2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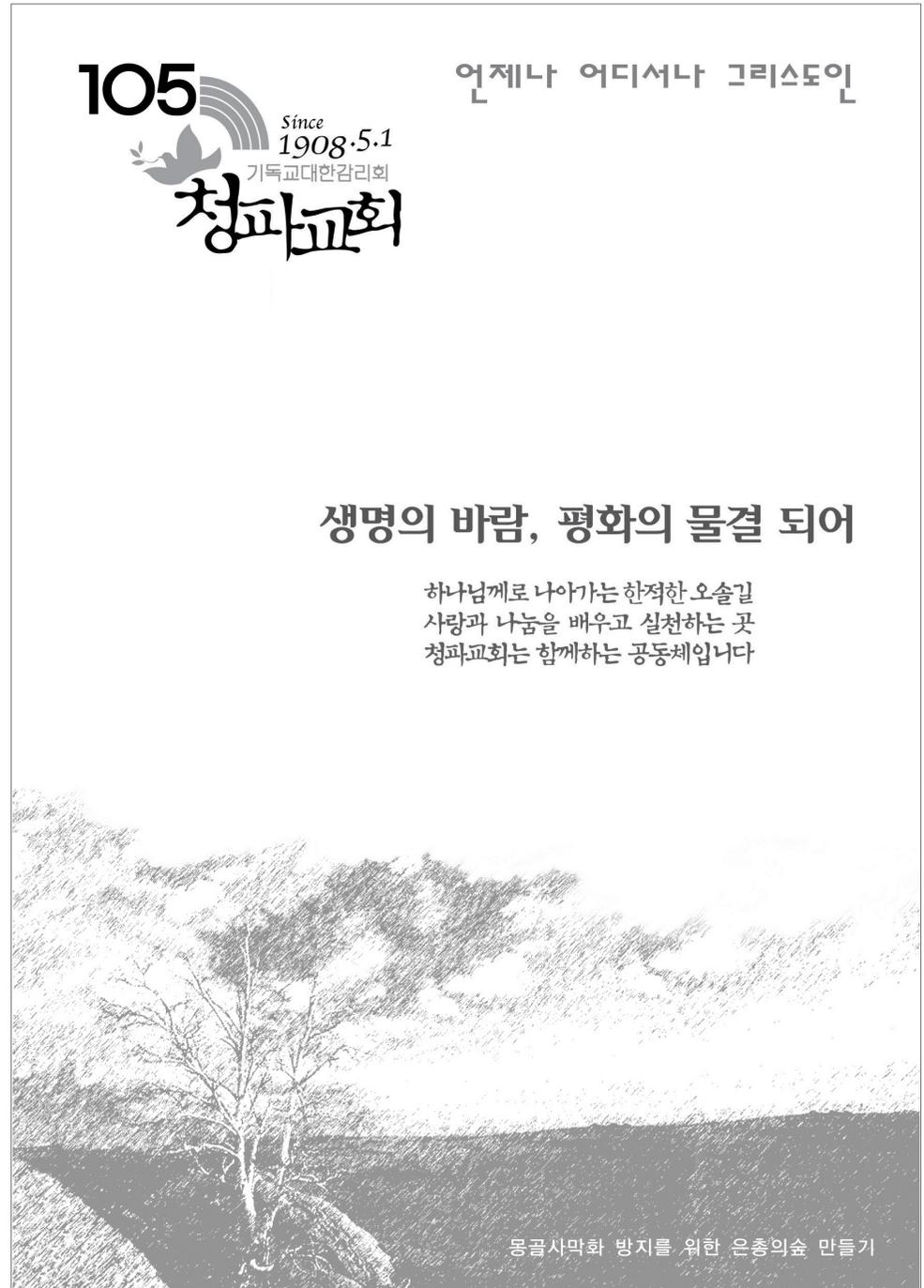
단 3:19-25

식 당 봉 사 : 정경례 강순배 신영신 김미현 김진선 김연실 김명순 김재환
다음 주 식당봉사 : 김윤정 조병주 김현영 최은미 박시내 이영아 백묘현 윤성중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 주 설거지 : 두란노 1속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쌀쌀해지는 날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음이 냉랭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삶의 온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차가워지는 세상을 뜨겁게 덥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람과 권력에 쉽게 복종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머리를 숙이기 전, 무릎을 꿇기 전에 우리 앞에서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불의와 거짓과 사탄 이익에 복종하지 말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와 대의만을 따르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권미정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영순 김일랑
이은옥 김종문 지명주 김필순 김혜영 문금석 민병배 문현미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옥순 박용진 김용원 백묘현 안길상 이형숙 양상철
박재란 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영미 윤주원 최윤선 이계선 이소순
이근식 신영신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윤석 박안수 이인웅
오승경 이자영 이재훈 이진영 한양미 이한림 김명희 이현순 정두리
정복순 정연희 정현모 최은미 한상경 무명

감사헌금

권미숙 김정은 백묘현 이광섭 이광재 이근식 신영신 이범희 이승진
이우엘 전인섭 전해민 김성공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참빛찬양대
한성건 정지혜 홍성식 이유리 무명10

생일감사헌금

윤수연

녹색꿈헌금

이진영 한양미 무명

장	혜	숙	백	혜	숙	정	두	리	송	임	회
노	순	옥	박	성	희	노	순	옥	김	윤	수
김	재	흥	최	경	미	서	원	금	이	은	옥
장	영	숙	신	영	신	곽	혜	자	이	명	순
정	경	례	진	정	숙	김	혜	권	문	금	석
박	홍	재	곽	권	희	정	선	희	박	홍	재
권	미	숙	박	미	영	방	극	숙	배	상	순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이	순	정
이	형	숙	윤	수	진	이	정	은	윤	수	진
안	홍	숙	오	현	정	안	홍	숙	오	현	정
정	영	선	서	정	순	김	희	경	송	양	진
박	혜	경	조	향	미	박	혜		조	향	미
김	재	흥	오	자	영						
이	범	석	이	근	식						
신	진	식	곽	상	준						
장	영	숙	김	세	진						

목계장터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새우 끊어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받을 늘 부드럽고 생기 있게 가꾸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심으신 씨앗이 시나브로 자라나 우리 삶에 생명과 평화의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온갖 부질없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말씀의 쟁기로 마음 받을 갈아엎겠습니다. 그 마음 밭에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씨앗을 뿌리며 살겠습니다. 귀한 열매 가득해지는 날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교회	옴기 /김기석 목사 기도 : 정경례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조병무 장로	박영실 선생 이현순 집사

11	영접위원	한상익 홍순구 조문규 심상숙 안홍숙 진정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혜경

믿음으로 읽는 글

4월의 크리스마스

교회가 자기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 기독교적인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프레드 크래독 교수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랑과 같은 개념에 관해 말하는 것과 사랑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사랑에 관해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랑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인 개념들에 관한 지식이 우리를 윤리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위대한 흑인 교육자이며 사회학자이며 역사가였던 버가트 두보이스는 하버드대학교, 베를린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미국 흑인들의 조건이 변화하는 것은 미국 흑인들의 진실을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구를 추진했다. 그의 연구에는 흠이 없으며 그의 도표들은 나무랄 데 없었다. 몇 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런 개혁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진실에 관한 진리, 즉 진실을 밝혀서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는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따라서 교회의 갱신은 옳은 실천이 옳은 믿음을 대체할 때, 세상에 대한 진정한 자비를 실행하려는 우리의 욕구가 타인들을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개종시키려는 충동보다 더욱 강할 때, 우리가 단지 말썽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썽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만 한다. 나는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우리의 전통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성경해석의 본질적인 과제는 단지 사람들에

게 한 본문이 말한 것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본문이 오늘 우리를 위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4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연례행사에 참가해왔다. 우리는 완전히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집을 선택하여, 어느 주말에 많은 순례자들이 그 집에 모여 수리를 한다. 배관 공사를 다시 하고 벽에 페인트칠을 하며, 새로운 카펫을 깐다. 청소년들은 마당에 꽃들을 심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새로 창문들과 문들을 달며, 할머니들은 점심을 준비한다. 모두가 자원 활동이며 어떤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그 집에 사는 노인들은 그날 다른 곳에서 지내도록 하여, 집수리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게 한다. 그 집주인이 어느 교단에 속하든 아니면 비종교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시 연결된다.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갖고 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낯선 이를 위해 좋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초월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된다. 집단적인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항상 개인적인 야심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좋다.

언더그라운드 교회에서 우리는 말은 덜 하고 행동은 더 많이 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조용히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해야 한다. ...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즉 미친 듯이 상품을 사고파는 비인격적인 세계, 음모를 꾸미며 거짓말하는 세계, 조작된 감정과 천박한 대화의 세계 바깥에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기본, 즉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임을 신뢰할수록, 자기만족이라는 질병을 내려놓을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나를, 나 자신, 나는 불경한 삼위일체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다.